

## 일제에 맞선 우리의 20세기 사상가

-자유와 양지-

최종덕(상지대, 철학)

### 1. 자유와 양지

세기말 조선 지식인 몇몇으로부터 개인의 자유 개념이 싹텄다. 군주의 천명으로 사회를 해석하는 기존의 유학과 달리 개인의 자유를 통해서 비로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희망을 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평등한 삶에 대한 민중의 희망을 대변하는 지식체계가 등장했다. 그것은 동학과 대종교 그리고 민중화된 양명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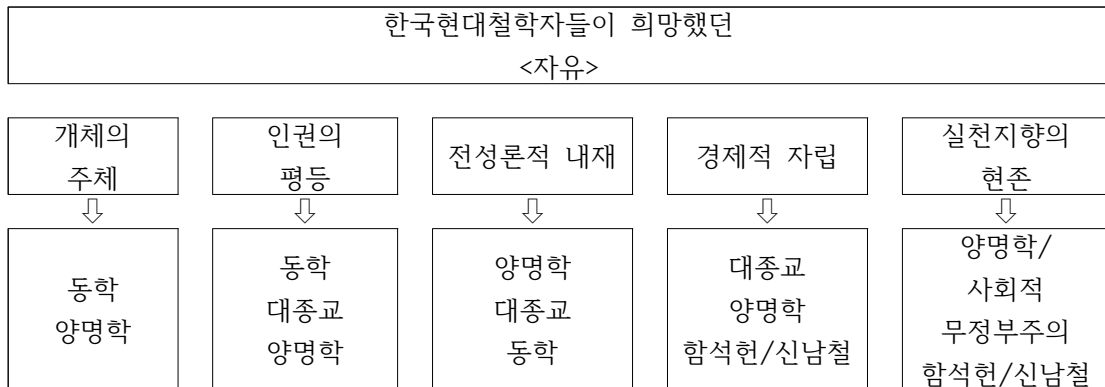
불행히도 이렇게 힘들게 성취된 자유의 싹은 일제 강점에 부딪혀 꽃은커녕 잎도 피우질 못했다. 자유의 상실은 한국현대사의 질곡을 보여주는 한마디의 통성이었다. 동학 사상의 최제우, 최시형, 이돈화, 김기전이며, 대종교 사상의 전병훈, 나철, 이기, 서일, 또한 양명학 계통의 신채호, 이회영, 이건창, 박은식, 나아가 동서양 결합지식계통으로 1960년대까지 이른 철학자로서 함석헌, 신남철, 박치우 등의 20세기 철학자는 바로 조선유학이 일제 동토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보여준다.

일제에 맞선 우리의 20세기 사상가			
동학 사상	대종교 사상	양명학 계통	동서양 결합 지식계통
최제우, 최시형, 이돈화, 김기전	전병훈, 나철, 이기, 서일	신채호, 이회영, 이건창, 박은식	함석헌, 신남철, 박치우
계급타파 중심	우주적 평등 실현	주체적 자각과 현존적 삶	이념과 현실의 결합

이들 한국 지식인의 대체적인 공통점을 자유 지향에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자

유 지향이란 해방의 길이며 해방은 이성의 영혼이다.(이규성 765)

일제에 맞선 통성인 셈이다. 그런 자유는 아래처럼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개인의 개체 차원의 독자성, 둘째 계급과 성차에서 벗어난 평등성, 셋째 백성은 계몽과 계도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 각각이 그 스스로 자유를 인식하고 실현하는 잠재력을 자기 안에 이미 갖추고 있다는 개인의 자기-전성설, 넷째 사회경제학적 자립성, 다섯째 합리적이고 주지주의적인 관점으로 다 해명될 수 없는 구체적 삶의 세계를 사는 현존성이다. 예를 들어 동학사상은 주체적 개체성, 계급 없는 평등성, 자기 안에 우주론적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통일된 자아, 그리고 사회경제적 자립성을 지향했으며, 대종교 사상은 평등함과 경제적 자립 및 삶의 현존 그리고 누구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범신론적 종교관에 맞닿아 있었으며, 양명학 사상은 앞서 말한 心即理에 기반한 양지의 이론으로 개체성-평등성-전성설의 윤리학, 자립성, 실천성 모두를 지향했다.(이규성 3부 9장)



실학도 성리학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여전히 백성을 계몽의 대상으로 간주했다. 기존의 성리학처럼 대인은 소인이 지향해야 할 범례이며 거꾸로 소인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도되어야 하는 그런 명분을 실학도 계승했다. 반면 동학 이후의 세기말 한국현대철학의 시동은 일방향적 군주정치나 성인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나 빈한한 유랑 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군자와 성인이 소인과 백성을 훈교하도록 정초된 성리학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도탄을 직시했다. “서민적 지성이 시대의 조류에 맞서 자신들의 주체적 자각에 의거 백성과 나라의 자주성을 고민하고 확립” 해야 하는 시대였다.(이규성 24)

기존의 유가적 수양론에 의하면 성인의 훈교를 통해 무지한 자는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무지한 자가 훈교되지 않는다면 계속 무지한 채로 남게 될 수 밖에 없음을 전제한다. 반면에 양명학과 동학의 정신은 이런 일방적 계몽화의 전제를 부정한다. 개체들 즉 백성은 이미 선형적으로 계몽된 상태이며 단지 미발현 상태일 뿐이라는 철학적 존재론에 있다. 그런 미발현 상태를 발현되게끔 바꾸어 주면 된다는 생각은 20세기 조선 양명학의 고유성이며 독특성이다.

양명학에서는 양지良知를 통하여 자기 안에 이미 내재되었던 성인과 군자를 찾아내기만 하면 되었다. 그런 양명학은 공동체 의식과 주권의식으로 깨우치는 현대적 의식의 가능성이었다. 양지의 사유구조는 평등과 주체, 자립과 현존을 세울 수 있는 분명한 철학적 기초이다. 또한 양지는 양명학의 인식론적 기초인 지행합일의 논리 위에 정초되어 있다.

## 2. 우리에게 철학은 있는가?

독립운동가 신규식이 일제에 항거하며 독약을 마시고 한쪽 눈을 잃었는데, 그 이후 그는 자신의 호를 한쪽 눈으로 즐겨본다는 뜻으로 예관睨觀이라고 붙였다.(한철연 344) 예관이란 반성하고 비판하며 행동하는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자를 비판적으로 즐겨본다는 뜻이다.

철학이 어떤 의미인지 지식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 철학함의 출발이다. 출세와 입신양명의 도구로 전락한 지식을 비판하며, 권력에 결탁하는 학문을 거부하는 새로운 비판과 부정, 저항과 혁명의 철학이 현대한국철학의 기초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한철연 341) 철학의 의미를 스스로 질문하며 나아가 분열의 시대를 마주한 현대인의 철학적 지혜를 모색하고 있다.

동학의 최제우, 대종교의 나철, 양명학의 박은식, 민족주의형 무정부주의의 신채호, 사회적 휴머니즘의 신남철, 실천철학의 박치우, 국가주의의 박종홍, 씨알철학의 함석헌의 철학은 우리가 새겨들을 말을 전하고 있다. 동학의 최제우에서 씨알 함석헌에 관통하는 철학은 이념적으로 평등과 자유에 있었으며, 방법론으로 저항과 실천에 있었으며, 내재적으로는 주체와 성찰에 있었다. 한국현대철학자의 고뇌와 서원의 철학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최제우> 동학의 철학은 평등사상의 발로에 있었다. “사람이 한울이니 사람을 한울처럼 섬기라”는 평등사상은 누구나 자기 안의 한울님을 찾아내어 마음

을 지키고 기운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했다.(한철연 84) 기존의 성리학에서 주체가 군자이거나 군주이었지만, 이제 백성 한 사람마다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무계급의 철학을 말한다. 최제우(1824-1864)를 단박에 가 깨닫게 한 한마디의 말이 서평자의 마음에 와 닿았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한철연 77)는 말이 내 안의 시천주侍天主에 대한 확신의 표현이다.

<나철> 단군교로 시작한 대종교의 창시자 나철(1863-1916)은 단군을 부흥시키는 일에 머물지 않고 일제탄압에 정면으로 맞서서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한다. 천지인, 혹은 한인-한웅-한검이라는 3의 구성체는 단순히 절대적인 구원의 길을 제시한 단순 종교적 특성을 넘어서서, 인간이 살면서 겪는 “느끼고 숨 쉬고 부딪치는” 세 가지를 가리켜 ‘세 길’이라고 부른다고 하며, 인간은 이 세 길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다.

<박은식> 황성신문을 창간한 박은식(1859-1925)은 사회진화론을 도입하여 서양과학에 친화적인 양명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조선 양명학이 한국현대철학에서 중요한 이유는 앞서 이규성의 자유론에서 언급되었다. 박은식이 말하려는 양지는 주자학의 주지주의적 도덕론에서 벗어나 있으며, 오히려 맹자가 말한 측은심의 기반이다. 후천적으로 습득한 것이 아닌 내재된 도덕적 정감의 의미를 포함하는데, 공정함과 시비선악의 기준으로서 성선함의 기초라고 설명한다. 특히 박은식은 양지를 자연을 밝게 통찰하는 앎, 순일하고 거짓없는 앎, 끊임 없이 유행하며 쉬지 않는 앎, 두루 감응하며 막힘이 없는 앎, 성인과 어리석은 사람과 차이가 없는 앎, 우주와 인간을 합일하는 앎이라고 쉽게 풀어주었다. (한철연 149)

<신채호> 우리에게 민족 개념이 들어온 역사는 짧다. 그나마도 박정희 군부독재 국가주의를 옹립하기 위한 이념적 도구로서 ‘단일민족’이라는 선전구호로 왜곡되었다. 이념적 도구가 아닌 주체로서의 민족 개념을 처음으로 안착시킨 철학자는 바로 신채호(1880-1936)였다.(한철연 173-6) 신채호는 성균관 박사(교수 지위)로 임용되었지만 과감히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 첫째 이유로서 전통이 유교적 세계관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둘째 이유는 자신의 스승 신기선을 포함해서 당시 유가적 전통을 따르는 집단이 친일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분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적 역사와 내적 성찰을 거치면서 신채호는 군주와 양반 중심의 일방향적 군주 사회가 아니라 백성이 주인 되는 민족 개념을 형성하였다. 신채호의 민족주의는 오늘날 해석에

따르면 ‘방어적’ 민족주의에 해당한다. 민족이란 민중이 주인 되는 주체의 국민을 의미하며, 서구식으로 말하면 시민에 해당한다. 그러나 영화 암살에 나온 캐릭터 김원봉을 신채호가 1922년 북경에서 만나면서 의열단 활동에 힘을 실어준 민중의 직접 혁명인 조선혁명선언을 발표하여 강한 이미지도 갖고 있다. (김송달 247쪽) 신채호는 나중에 국가 차원의 주인성보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더 중시하게 된다. 결국 신채호의 철학적 관심은 1928년 이후 민족주의에서 탈피하고 사회진화론의 영향력에서도 벗어나서 아나키즘으로 변화한다.(한철연 190) 이런 점에서 신채호의 철학은 한국현대철학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그런데 신채호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는 지나치게 민족주의자와 독립투사로만 부각되어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주체들이 자기성찰과 자기각오를 통해 궁극의 자유를 창조하는 사유의 발판”을 신채호가 마련했다는 점에서(한철연 194) 신채호 철학의 의미는 과거에 그칠 일이 아니라 미래의 지표로 될 수 있다.

<신남철> 브렌타노 현상학 논문으로 경성제대 철학과를 졸업한 신남철(1907-1958)은 헤겔과 고대그리스 자연철학 연구를 지속해 왔다. 헤겔의 정신철학 연구에서 신남철은 역사철학과 인식론을 연결시켰고, 나아가 철학을 현실 역사에 접목시켰다. 신남철은 헤겔의 정신철학을 단순한 관념의 발전이 아니라 세계와 인식주체 사이의 끊임없는 실천적 상호작용으로 해석했다.(한철연 215) 신남철의 관심은 서구 르네상스 문화가 조선역사에 출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묻는 실천적 질문에 있었다. 신남철은 그 답을 계몽과 인간 그리고 자유라는 세 가지 키워드에 초점 맞추었다. 1942년 7월 1일 매일신보에 실린 신남철의 “자유주의 종언”은 그의 현실참여형 정치철학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그 글에서 첫째 대동아공영권 개념을 강조한다. 이 점으로부터 신남철을 비롯한 당대의 많은 지식인들이 일본의 제국주의 야욕을 세계보편주의로 오해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서구 국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셋째 국가를 떠나서는 자유를 실현할 수 없다고 했다. 넷째 자본주의를 비판한다. 이후 중국식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고 월북한다. 신남철은 1948년부터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서양철학사를 강의하다가, 나중에 자유주의자로 낙인찍힌 후 1958년 사망했다. 결국 그는 정치적으로 남한 정부나 북한 정부에도 적응할 수 없었으며, 자유주의와 이상주의를 영원히 품고 있었던 휴머니스트였을 뿐이다.

<박치우> 총을 든 빨치산 철학자로 알려진 박치우(1909-1949)의 삶은 정말 실천철학의 범례였다. 박치우의 실천은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인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한다. 박치우는 경성제국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송의실업전문학교 교수와 조선일보기자로 있다가 월북했다. 그는 문학평론가이며 마르크스 철학의 학자였지만 유격투쟁의 일선에서 삶의 실천을 더 중시했다. 그는 빨치산으로 남파되어 활동하다 1949년 태백산에서 사살되었다. 그는 근대철학의 방법론을 배우고 실천하려 했던 최초의 강단철학자로 평가받기도 한다.(한철연 233) 그는 현실에서 실천으로 이행하는 철학적 단계를 그의 책 <사상과 현실>(1946)에서 해명하였다. 그것은 ‘교섭적 파악’, ‘모순적 파악’, 그리고 ‘실천적 파악’의 세 단계이다. 위기의 파악과 극복은 이성에 근거하지만 실제로는 ‘실천’으로만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 박치우의 기본 명제이다. 이를 그는 “로고스와 파토스의 변증법적 결합”이라고 불렀다.(한철연 239) 철학이 이론으로만 머물 때 가장 호사스러우면서도 가장 허울에 찬 것에 지나지 않음을 박치우는 강조한다. 우리는 박치우의 실천 행로가 꼭 옳은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철학의 할 바가 무엇인지를 박치우를 통해 배울 수 있다고 본다. “철학은 오늘. 이 땅, 우리에게 있어서 ..., 어떤 책임을 분담해야만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박치우는 한시라도 떨어진 적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한철연 243) 한철연은 박치우에 대한 평가를 다음의 한 마디로 하고 있다. “한국에도 사유와 삶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분투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한철연 267) 그런 박치우도 북한공포정권에 의해 결국 희생되고 말았다.

<박종홍> 저는 어렸을 적 학교에서 박정희 군부독재의 의식화 사업의 하나였던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로 시작하는 국민교육헌장을 외우지 못해 선생님에게 매를 맞은 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 국민교육헌장을 작성한 이가 박종홍(1903-1976)이다. 근대의 폭력적 권력이 전근대의 전제적 왕권보다 더 잔인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 퇴행의 역사, 박정희의 ‘10월 유신’이라는 이름도 박종홍이 붙인 것이다. 박종홍은 신남철이나 박치우처럼 경성제대 철학과 출신이었으며, 1968년 서울대 철학과 교수로 평온하게 은퇴했다. 다른 한국현대철학자들이 철학과 현실을 접목시키려 시도한 지식인으로 평가된다면, 박종홍은 철학과 현실에 권력까지 접목시킨 국가주의 지식인이었다. 그의 청년 지식기는 헤겔과 하이데거 그리고 퇴계를 통해서 전통철학과 서구철학을 연결하는 데 있었다. 박종홍은 그의 후반기로 이행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보다는 집단의 운명을 강조한다. 집단의 공동체적 운명이 자각과 자유를 지닌 개체

로서의 ‘나’보다 선행한다고 했다. 이러한 박종홍의 입장은 그가 향후 왜 독재 권력에 적극적으로 승차한 정치적 이유를 알게 해준다. 그의 철학은 보통 ‘부정과 창조’의 철학’으로 이름 붙여지기도 하는데, 그 내용인즉 부정을 통해 집단성의 힘을 창조한다는 데 있다. 박종홍에게 주체는 개체가 아니라 철저히 우리 민족이라는 결론에 이른다.(한철연 294-9) 해방 후 미군정 중심으로 경성제대를 편성한 ‘서울국립종합대학안’을 많은 지식인이 반대했지만 박종홍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승만 독재에 대해서도 박종홍은 묵인의 함구를 했다. 이러한 사실과 대조적으로 박정희 군사 쿠데타 이후 박종홍은 대통령교육문화담당 특별보좌관을 역임하는 등 적극적인 권력참여를 했다.

<함석헌> 씨알의 철학자로 알려진 함석헌(1901-1989)은 억압에 대한 저항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 젊은 함석헌의 오산학교 시절은 일제 저항의 민족적 정신과 스승 유영모를 통한 노자 철학 그리고 개신교와 세계의 문화적 보편성에 다층적으로 영향받은 시간이었다. 이후 일본 유학기에 범신론적 종교성, 평화주의, 반자본주의, 노장 사상의 현대적 해석을 통해 실천적 지식의 지평을 넓혔다. 함석헌의 철학은 평화사상과 생명사상으로 줄여 표현할 수 있다. 평화와 생명은 저항으로부터 온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함석헌 씨알 사상의 핵심이기도 하다. “비폭력, 불복종, 총단결”로 요약되는 ‘민주시민을 위한 헌장’(1974)은 앞서 말한 박종홍의 국가주의 칙령인 국민교육헌장에 정면으로 맞서는 씨알의 지표였다. 씨알의 의미는 씨알이란 진보의 역사를 끌고 가는 주체, ‘고난의 역사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역사’의 주체이다. 함석헌의 말이 있다. “저항하는 것이 사람이고, 저항할 줄 모르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한철연 334)

나아가 함석헌은 현대 생명사상의 기초를 다져준 지식인이다. 함석헌의 생명의 원리는 첫째 자연적이며, 둘째 스스로 드러나며, 셋째 환경에 맞서 고난하며, 넷째 자유로우며 능동적이다.(한철연 321-8) 즉 생명 자체가 평화의 근원임을 보여준 것은 함석헌 철학의 역사적 혁명이었다.

<참고문헌>

이규성, 한국현대철학사론, 2013  
한국철학사상연구회(한철연), 처음 읽는 한국현대철학, 2015  
한국철학회, 한국철학사, 1987  
박우사, 한국의 발견, 1962

김송달, 한국근현대 100년사 1부, 1998

정인보, 양명학연론, 1972(삼성문화문고)

신동아, 개항100년 년표 자료집, 1976년 신동아부록